



제13회 대한민국발레축제에서 광주시립발레단이 특별기획공연 '돈키호테'를 선보이고 있다.

<광주예술의전당 제공>

올해도 감동과 환호의 무대 펼쳐진다

광주시립예술단 상반기 주요 공연

- GSO오티움 콘서트
- 신년음악회 'Festival'
- 창작발레 'DIVINE'
- 5·18 기념음악회 '합창제'
- 어린이날 기획공연 '미술+음악'
- 김수영 시인 삶 '거대한 뿌리'



광주시립극단 제20회 '벚꽃동산' 공연 장면

올해 문화기관들 공연 라인업이 공개되고 있는 요즘, 광주예술의전당(전당장 운영문·전당)이 전당 소속 8개 광주시립예술단의 상반기 주요 공연 프로그램을 공개해 눈길을 끈다.

먼저 광주시립교향악단(GSO)은 지난해에 이어 일상 속 여유를 지향한다는 의미를 담은 GSO 오티움 콘서트(2회)를 비롯해 실내악 공연 GSO 체임버 시리즈(4회), 키즈콘서트(1회), 초청공연(2회) 등을 상반기에 선보일 계획이다.

오는 16~17일 펼쳐지는 신년음악회 'Festival'을 시작으로 2월 24일 정기연주회 'No.2', 3월 29일 'Klimax' 등을 차례로 연다. 이어 교향악축제 프리뷰 'Babi Yar' (4월 24일), 같은 달 28일 '현정'과 '진혼' 등도 전당 일원에서 볼 수 있다.

지난해 광주의 5·18 민주화 정신을 기리면서 호응을 얻었던 광주시립발레단의 창작발레 'DIVINE'도 다시 무대에 오른다. 거대한 암막을 뒤흔들며(발레스크트)처럼 흔들리는 장면 등이 압권인 작품으로 5월 24~25일 전당 대극장에서 진행된다.

또 낭만-고전발레 등의 하이라이트를 갈라 쇼 형태로 즐기는 '발레살롱콘서트1, 2'도 3~4월 전당 소극장에서 볼 수 있다.

광주시립합창단은 상반기 첫 공연으로 '신춘음악회-봄, 합창으로 노래하다'를 준비했다. 3월 22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총 5회의 기획연주회 일환으로 '합창을 화합의 장으로, 합창을 화합의 도구로'라는 주제의 공연은 4월 16~23일 진행하며, 5·18 기념음악회 '광주 합창제'는 16일 볼 수 있다.

창단 30주년을 맞이한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은 3월 14일 신춘음악회 '서막, 새로운 30년을 열다'로 관객들을 만난다. 공연은 박범훈, 이고은, 홍정의를 비롯해 최지운, 황호준 작곡가 등이 국악관현악 합주곡을 들려줄 예정이며 아쟁, 마립바, 거문고 협주곡도 레퍼토리에 있다. 이밖에 정기연주회 일환으로 '청소년 협연의 밤'도 선보인다는 계획(6월 20일)이다.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3월 30일 '봄의 여

행'으로 올해 공연의 문을 연다. '봄'을 주제로 한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의 노래들을 재즈밴드와 협연을 통해 들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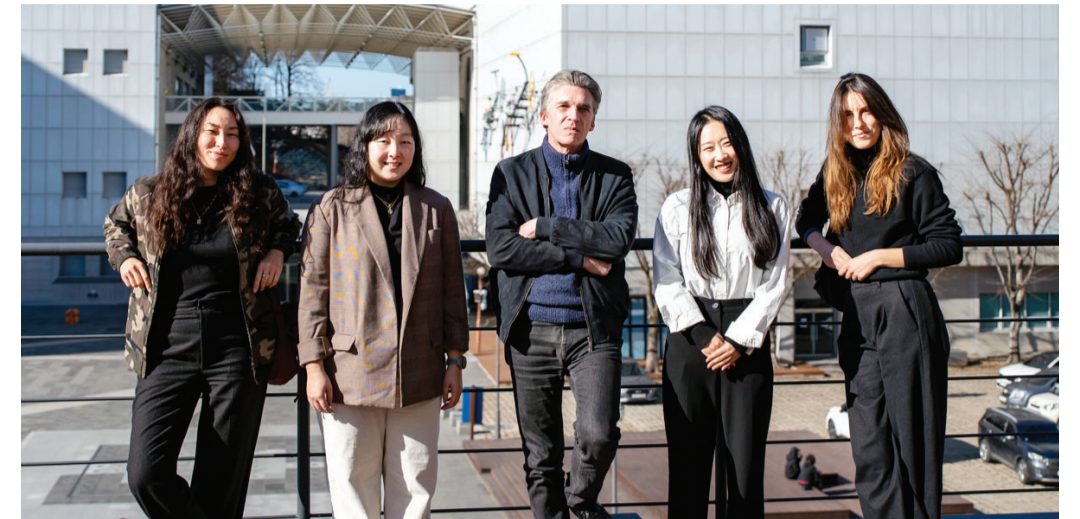
5월에는 어린이날을 맞아 기획공연 '미술+음악'을 기획 중이며, 6월 호국보훈의 달을 기념해 '모차르트 레퀴엠' 등도 선보일 예정.

창작극 '거대한 뿌리'도 무대에 오른다. 광주시립극단이 4월 25~27일 펼칠 예정으로 6·25, 3·15 부정선거, 4·19혁명 등 굵직한 격동의 현대사를 겪은 김수영 시인의 삶을 그린 작품이다. 이밖에 광주시립오페라단이 준비 중인 가족오페라 '신데렐라'는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작품이다(6월 6~7일).

광주예술의전당 모성일 팀장은 "지난해 시민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리모델링한 전당은 올해 본격적으로 다양한 공연들을 선보일 예정이다"며 "새롭게 비상하는 마음을 담아 다채로운 신년 상반기 무대를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과 기대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큐레이터와 첫 미팅

니콜라 부리오 감독, 전시 구성 의견 나누고 양림동 일대 답사



왼쪽부터 쿠랄라이 압두칼리코바 큐레이터, 소피아 박 큐레이터, 니콜라 부리오 감독, 이은아 보조 큐레이터, 바비라 라지에 큐레이터. <광주비엔날레 제공>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는 제15회 광주비엔날레는 미술 담론 형성의 장이라는 본연의 역할과 비엔날레 에너지로 지역 미술계로 확산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예술 감독을 맡은 니콜라 부리오와 제15회 큐레이터들이 광주에서 첫 미팅을 가져 눈길을 끈다. 니콜라 부리오 감독의 광주 방문은 이번이 세 번째다.

광주비엔날레(대표이사 박양우)는 니콜라 부리오 예술감독이 방한해 전시를 구현할 큐레이터들과 만남을 갖고 전시의 구성, 맥락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이번 니콜라 부리오 감독과 전시를 큐레이터들은 쿠랄라이 압두칼리코바(프랑스)를 비롯해 바비라 라지에(프랑스), 소피아 박(미국) 큐레이터 3인과 보조 큐레이터 이은아(한국)로 구성돼 있다.

이번 방한에서 니콜라 부리오 감독은 큐레토리얼팀과 양림동 등 광주의 공간을 매개로 시각예술로 표현할 방안 등을 고민할 계획이다. 특히 광주 지역 작가들과의 면담 외에도 광주의 역사적 흔적과 삶이 담긴 장소를 모티브로 예술로 풀어낼 방향 등에 대해서도 숙고할 예정이다.

그는 "제15회 광주비엔날레는 오늘날 인류가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고민하고 그것을 어떻게 예술적으로 보여줄 지 고민하는 장이 될 것"이라며 "이번 광주 방문을 계기로 시민들과 접촉하면서 미래지향적인 문화 담론과 비전을 펼칠 수 있는 교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한편 니콜라 부리오 감독의 방한은 오는 16일까지이며, 양림동 일대를 답사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우리아이 처음 만나는 클래식 쉽고 재밌게

ACC '패밀리 클래식' ... 27~28일 어린이극장

클래식을 접한 적 없는 아이들이 쉽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클래식 공연이 마련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ACC) 난생처음 시리즈 '패밀리 클래식'이 바로 그것. 오는 27~28일 오후 2시 ACC어린이극장에서 펼쳐지는 무대는 태어나 처음 문화예술을 접하는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ACC가 선보여 온 기획 공연이다. 작년에는 연극 '태양을 두드리는 아이들'을 비롯해 어린이무용 '루돌프' 등으로 관객들을 만났다.

올해는 남성 연주단체 MEG양상블이 목소리를 들려준다. 2021년 창단한 MEG양상블은 26명의 남성 연주자로 구성된 클래식 연주단체로 에니메이션, 발레 등 다양한 장르에 클래식을 접목하고 있다.

칼렌킨스의 '발라디오 1악장'을 비롯해 비발디의 '사계 중 겨울 1-3악장'을 들을 수 있다. 쇼스타코비치 '재즈 모음곡 2번 중 왈츠',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 등도 올려 퍼질 예정. 클래식 애호가들에게는 비교적 익숙한 작품일 수 있으나 난생처음 시리즈라는 취지와 맞물린 레퍼토리로 보인다.

전석 1만5000원. ACC 누리집 예매.

이어 그리그 곡 '홀베이트 그 모음 1악장', 홀스트의 '성바로 모음곡 2번 1악장'과 차이코프스키 '현을 위한 세레나데 중 2악장 왈츠'도 준비돼 있다.



피아니스트 김윤진

피아니스트 김윤진의 해설도 곁들여진다.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에서 피아노 학사, 베르사유국립음악원에서 피아노 박사학위를 받은 김윤진은 전국에서 클래식과 인문학을 접목한 강의를 진행해 왔다.

ACC 이강현 전당장은 "피아니스트의 해설과 배우들의 연기, 입문자도 익숙한 클래식 곡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가족 단위로 함께 즐기 좋은 공연이니, 주말에는 공연장을 찾아 아이들에게 클래식의 즐거움을 선물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석 1만5000원. ACC 누리집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남석우·이세현·이진상, 흥미로운 예술세계

하정웅 미술관 청년작가전, 10일 '포트폴리오 발표 II'

남석우 작가의 작품 세계는 그림책을 보는 듯한 친근함을 준다. 이세현 작가는 사진을 매개로 실재와 기록적 의미를 담아내며, 이진상 작가는 반려동물과 함께 하면서 느꼈던 단상 등을 표현한다.

광주청년작가들은 광주 미술의 미래를 펼치고 견인하는 주인공들이다. 이들의 독창적인 작품세계를 엿보고 폭넓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하정웅미술관 광주청년작가전이 기획한 '하이퍼이미지 시대의 미술' 연계행사도 '포트폴리오

발표 II'에서다. 오는 10일 오후 2시 광주시립미술관 하정웅미술관. 이 자리에서는 남석우, 이세현, 이진상 작가의 예술세계가 소개된다.

백종욱 미술생태연구소장이 비평가로 참여해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는 비평을 덧붙인다.

백 평론가는 홍익대 미대를 졸업하고 독일 베를린예술대학에서 조형예술을 공부했다. 광주비엔날레 큐레이터,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 예술감독을 역임했으며 현재 공공미술 프로젝트, 미술 비평 등을 하고 있다.

남석우 작가는 현실을 토대로 작품 속 가상세계



이진상 작 '다이어트'

를 구현하는데 그림책의 이미지를 선사한다. 작가의 상상에서 발현된 가상세계는 낯설지 않고 익숙하며 즐거운 상상을 하게 한다.

이세현 작가의 사진은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민주화운동을 비롯해 노동 운동 등 의미있는 장소를 모티브로 한다. 사실성과 장소성을 담지하는 작품은 관객들로 하여금 사건과 장소의 관계성을 사유하게 한다.

이진상 작가의 작품 속 반려동물은 친근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 얼굴은 반려동물이지만 복장이나 행동 양상은 의인화돼 있어 흥미롭다. 이 작가는 자신에 대해 "나의 삶의 반 이상을 반려동물과 함께 했으며 그들과 공존하는 삶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김준기 관장은 "이번 '포트폴리오 발표 II'는 청년 작가들이 자신만의 개성적인 작품세계를 알리는 자리"라며 "비평가의 전문적인 평, 참여 작가와의 깊이있는 대화를 매개로 내일을 열어가려는 청년 작가들의 예술세계를 가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이세현 작 '알드르비행장'

연경인문문화예술연구소 '시창작 아카데미'

3월28일까지 매주 목요일... 석연경 시인 강연

연경인문문화예술연구소(소장 석연경·순천시 중앙2길 11-19)에서는 신년을 맞아 '시창작 아카데미'를 진행한다.

4일 개강해 오는 3월 28일까지(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열리는 이번 시창작 아카데미는 이론과 실기 위주로 펼쳐진다. 강사는 시인인 석연경 소장.

수업은 총 2시간 진행되며 1시간 30분은 시창작 수업을 한다. 창작 이론과 합평을 병행해 실제시를 쓰는 데 있어 필요한 방법론을 함께 연구하고 공부할 계획이다.

'시창작 아카데미'에서는 시창작 수업을 하면서 인문학 전반을 함께 공부하는 기회도 마련된다. 미리 읽어 온 인문학 서적에 대해 질의 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펼쳐질 예정이다.

석연경 소장은 지난 2013년 '시와 문화'에서 시가 2015년 '시와 세계'에서 문학평론이 당선돼



석연경 소장

"이번 시창작 아카데미는 시를 쓰고 싶지만 어떻게 시작할 지 잘 모르는 문학지망생들을 위해 마련했다"며 "함께 배우고, 연구하며,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시에 가까이 다가가도록 하는 데 강의의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